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9~8/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를 살더라도(법구경)	향원 오원탁	불교시대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2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부	7	이띠웃따까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3	극락세계 유람기	석관정	토방	8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이층버스
4	월호 스님의 천수경 강의	월호	운주사	9	초기불교 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10	앙굿따라니까야(2)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희곡으로 그린 코로나 속 인간군상



트램펄린 위의 낭독
김숙현 지음
도서출판 북나래 펴냄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희곡작가 김숙현 네 번째 작품집
희곡 · 산문 등 다양한 장르 실어
코로나 팬데믹 속 인간군상 그려

희곡 작가 김숙현이 네 번째 작품집 〈트램펄린 위의 낭독〉을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희곡과 산문, 불교와의 인연 글, 영화평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담았다.

1부 '읽는 연극 희곡-무(無)에서 생기는 건 무(無) 뿐이다' 에는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을 비롯한 6편의 희곡을 실었다.

"어떤 감염병도 사망자가 제로가 되어 끝나는 건 아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불화하는 인간끼리 대화하라는 큰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받을 사람은 이해받고, 굳이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은 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의 삶을 원래대로 살아내겠죠."

표제작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은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있다. 2019년 코로나가 발생했고, 패닉 상태에 빠진 강희주 부부의 집에 강희주의 여동생 강민주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민주는 어머니인 J여사가 코로나로 사망하며 남긴 유언을 언니 희주에게 전하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언니를 탓한다. 그로 인해 강희주와 J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드러나고, 강민주의 출생의혹 스캔들 때문에 톱배우 희주가 영화계 활동을 접어야했던 사실도 밝혀진다.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은 인간의 '삶' 과 삶의 필연인 '관계' 를 재난 상황인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있다. 예측불가능의 코로나라는 설정에 대입된 인간의 삶과 그 삶을 이어가는 관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대의 인간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희곡은 시, 소설과 함께 문학의 3대 장르의 하나이며,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30%가 희곡작가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희곡을 연극의 일부로만 여겨 문학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화려한 공연장과 배우들의 명연기는 각광을 받는데, 막 뒤에서 창작혼을 불태우고 있는 희곡작가의 노고는 가뭇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작가는 그 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군상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려 애써왔다. 그리고 그 출구는 희곡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쪼개서 한편이라도 희곡을 더 써야지!, 걸작을 써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 하는 과욕과 자의식 과잉으로 온갖 병증이 치성했나 보다. 그런데 이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쓰니, 오히려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가동되면서 심장을 뛰게 만든다. 작품 쓰다가 막히면 정원 산책에 나선다. 각 캐릭터의 동기 부여나 액션, 대사를 구상하다 보면 흡사 새 연인을 만난 것처럼 감각이 되살아나고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 트인다. 작품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에 창의력과 의욕이 생기니, 어쩌면 문학이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한 발은 땅을 딛고 현실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나머지 한 발은 저 먼 미지의 세계를 헤매는 양상이랄까."

김 작가의 희곡은 무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무대를 거쳐서 나온 문장이다. 무대를 바라바고 쓴 희곡이 아니라 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내려온 희곡이다. 김 작가는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했다. 글보다 무대를 먼저 시작했던 것이다. 김 작가의 희곡은 치열하고 진지한 수많은 연극을 경험하고 난 후 한 편의 희곡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2부 '삶이 힘들다면 산문을 펼치자-희곡작가의 산문' 에는 '실존의 길을 선택한 크누트 함순' 등 17편의 산문이 실렸으며, 3부 '불연과 개안-50여 년 글쓰기 정진' 에는 '문자 포교의 열망' 등 불교와의 인연 글 4편이 실렸고, 4부 '스크린 너머-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 에는 '작가적 야망과 진실-카포티 · 베넷 밀러-2006' 등 12편의 영화평이 실려 있다.

▲김숙현 작가는?

1969년에 등단해서 4권의 희곡집을 냈다. 2015년 출간한 희곡집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는 2017년 '이주홍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상금을 마중물로 표제작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를 2018년 10월 31일부터 5일간 부산 거제동 한결아트홀에서 공연했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천수천안' 칼럼을 13년째 집필하는 한편, 인문학적 감성에 바탕을 둔 영화에세이들을 시리즈로 발표했다. 희곡집으로 〈외줄위의 분장사〉, 〈바이올렛 왈츠〉,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와 칼럼에세이집 〈가슴에 폭탄을 품은 여자들〉, 영화에세이집 〈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가 있다.

계율에 대한 친절한 길라잡이



초학자와 함께하는 계율공부
정현 스님 지음
서주 스님 그림
담앤북스 펴냄/ 1만 6800원

한국불교의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에서 학인들과 계율 공부를 하며 정진하고 있는 정현 스님이 〈수계 50문답〉에 이어 두 번째 저작인 〈초학자와 함께하는 계율 공부〉을 선보였다.

이 책은 계율을 익히고, 율법에 따라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자가 불교 수행자와 초심자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펴낸 책이다.

총 50개의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글은 출가의 의미, 계율의 수지, 출가자의 품격과 복장, 계 받는 일의 중요성, 정법이 오래 머무는 조건 등 수행자와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남산율종의 특징, 승가의 화합과 갈마, 수행자의 결기 등 승가 공동체가 잘 받아 지녀 후대에 계율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발원과 초학자들의 정견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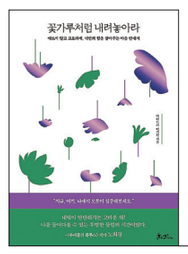
정현 스님은 출가 후 대만의 계율 도량인 의덕사에 유학하여 계율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계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율장의 중국 전래와 사분율 수계를 비롯하여 남 · 북방 불교의 계율관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등 계율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실참을 바탕으로 하여 계율 수지의 중요성과 진정한 출가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율은 불교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글은 통해 본 계율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이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각자의 수행길에서 계율이 잘 지켜진다면 수행의 길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책의 곳곳에 현재 미국 위산사에서 정진 중인 서주 스님의 그림을 넣어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여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신성민 기자

내면의 힘을 키우는 마음안내서



꽃가루처럼 내려 놓아라
이시헌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1만 6800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바쁜 일상과 인간관계의 피로 등. 현대인들의 마음은 잠깐의 평온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처럼 증가하고 있고,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일상어가 됐다.

비틀즈, 마이클 조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의 명상 관련 일화는 유명하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도입하여 마음 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이곳의 CEO들도 절반 이상이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구글이나 삼성 등 수많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멘탈 트레이닝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명상이 과학, 심리학과 연결,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각 기업과 학교, 병원이나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이용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는 내면 성찰과 의식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성 안내자인 저자가 명상을 통해 접속한 마음챙김으로 누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한 내력(內力)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한다. 고요한 상태에서 내면에 집중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까지 밝히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방법과 의식성장 솔루션, 실천 워크북, 마음챙김 가이드 명상 QR코드까지 수록해 혼자서도 훈련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의식성장 솔루션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 사례까지 수록했다.

신성민 기자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성어

베스트 셀러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 원

-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